

# 中·韓 笑話 考察

—受容과 變異樣相을 중심으로

張美卿\*

## ◁ 목 차 ▷

- |                      |                     |
|----------------------|---------------------|
| I. 序言                | 1. 기본내용·등장인물 동일     |
| II. 中·韓 文人의 笑話觀과 笑話集 | 2. 기본내용 동일, 등장인물 상이 |
| 1. 中·韓 文人의 笑話觀       | 3. 내용 탈락 및 첨가       |
| 2. 中·韓 笑話集 概況        | 4. 끝맺음 유사, 표현의 이질화  |
| III. 受容과 變異樣相        | V. 結語               |

## I. 序言

韓國 文獻笑話의 寶庫라고 할 수 있는 《고금소총》에는 800여 편 이상의 역대 소화들이 실려있다. 그러나 여기에 실려있는 소화들이 모두 한국 내에서 자생된 것인가, 아니면 주변국과의 교류를 통해 그 영향하에 생겨난 비자생적 소화들인가, 또 비자생적 소화가 있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문제는 국문학계 패설문학 연구자들이 줄곧 관심을 기울인 문제이다. 그러나 소화 전반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진하고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황하에 이에 대한 규명은 사실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민간문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화에 대한 관심이 漸增하는 가운데 소화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문학사의 균형있는 연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필자는 中韓 兩國의 17·8세기 대표 소화집 가운데 중국의 소화집으로는 《笑府》를, 한국의 소화집으로는 《於野談》·《破睡錄》·《覺業志諧》·《禦睡新話》 등을 텍스트로 삼아 비교·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17·8세기는 中·韓 兩國 모두 笑話史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다. 우선 中國은 이 시기가 笑話集의 全盛期에 해당하는데, 前代의 笑話들을 집대성한 笑話集들이 널리 유행하는 한편, 하나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의 笑話集에 방대한 양의 소화가 실린 笑話集들을 포함, 다양한 성격의 笑話集들이 만들어졌다. 또한 前代의 士大夫 逸話 중심의 笑話集 성격에서 탈피하여 民間 중심의 본격적인 笑話集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한국의 경우, 이 시기는 사대부 및 지식인들의 笑話를 비롯한 패설문학에 대한 인식이 차츰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어 대량의 소화집이 편찬되는 때이다.

필자는 17·8세기를 중심으로 兩國의 笑話集을 비교한 결과, 韓國 笑話 가운데 많은 것이 중국의 것을 수용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고는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영향<sup>1)</sup>에 초점을 맞추어 그 수용 과정에서의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에 대해 주로 논하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中·韓 文人の 笑話觀과 비교 대상이 된 笑話集을 살펴봄으로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II. 中·韓 文人の 笑話觀과 笑話集 概況

### 1. 中·韓 文人の 笑話觀

웃음은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정서로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며 긴장된 정신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滑稽에서 이끌어 내는 쾌감은 또한 일종의 발산작용에 속한다는 점에서 悲壯感과 같다. 그러나 이것이 비장감과 다른 점은 비장감의 경우 불쌍함을 느끼거나 두려워 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울적한 기분을 발산시키는 것이지만, 골개는 크게 웃음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울적함을 발산한다는 것이다.”<sup>2)</sup> 笑話의 가장 직접적인 작용은 바로 사람을 웃기는 데 있고, 이 웃음은 바로 즐거움의 표현으로 근심 걱정과 슬픔, 번뇌를 몰아내어 침체된 정서를 쾌활하게 바꿀 수 있다.

笑話集 편찬자들은 자신들의 소화집 序文 혹은 跋文에서 笑話의 편찬 동기와 笑話에 대한 인식을 밝혔다. 여기서 馮夢龍을 비롯하여 明清代의 비교적 저명한 笑話書 편찬자의 笑話觀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馮夢龍은 그의 《笑府·序文》에서 “고금을 털어 이 세계는 하나의 큰 웃음 집〔笑府〕이다. 나와 내가 모두 그 안에서 이야깃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1) 자료 분석 결과 韓國에서 15.6세기에 성행했던 徐居正의 《太平閑話滑稽傳》과 宋世琳의 《樂眠橋》 등에는 《笑府》와 관련 있는 소화가 거의 없는 것에 근거하여 한국소화가 중국소화를 수용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2) 姚一葦, 《美的範疇論》, 臺灣, 開明書店, 1982, p.261

말하지 않으면 사람이 되지 못하며, 웃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으니, 웃지도 않고 말도 않으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sup>3)</sup>라고 하여 수많은 대중 속에서 산생되어 사람 사이의 정분을 두텁게 하고 복잡한 인간관계의 긴장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笑話의 娛樂性과 大衆性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웃음은 단조로운 생활을 생기있게 만들고 인간관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馮夢龍은 笑話의 이러한 ‘解憂’ 技能을 긍정했다.

明代 趙南星이 찬한 《笑贊》의 〈題詞〉에도 “書籍이나 傳記에 기록된 것 또는 목전에 보이는 일들에 우스운 일이 적지 않다.”하고 “이것은 孤居無聊를 물리치는데 一助가 된다. 그러나 그로써 名理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世教에 통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붓을 적시어 문장을 짓는 사람이 그 뜻을 알면 機鋒에 도움되는 일이 적지 않다”<sup>4)</sup>고 하여 笑話가 무료를 달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世教에 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 있다.

李卓吾의 作으로 알려진 《開卷一笑》 ‘序言’에 “사람 사는 세상이란 그들에게 장엄하고 높은 수준의 언사로 말하면 듣는 사람이 시큰둥할 따름이지만, 거칠 것 없이 회화하며 우스운 말을 한다면 온 좌석에 환성이 넘치기 마련이다.”<sup>5)</sup>라고 하여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적절한 笑話 한 마디는 즐거운 웃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淸의 石成金은 《笑得好·自序》에서

正言은 들으면 졸음이 오려하나 笑話는 뒤질세라 들으려 한다. 今人の 常情은 대개 이미 正言으로 타일러서는 듣지 않으나 笑話로써 두텁게 하면 어떠할지? 나는 이에 笑話書 한 권을 짓고 警醒의 評語를 곁하여 독자로 하여금 무릇 허물이 있고 편파적이거나 어리석고 탐욕적인 갖가지 일에 대해 나의 笑話를 듣고 다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게 하여 모두가 선량한 好人이 되게 할 것이다. 따라서 ‘笑得好’ 석자로 본서를 이름한다.

(正言聞之欲睡, 笑話聽之恐後, 今人之恒情, 夫既以正言訓之而不聽, 曷若以笑話怵之之爲得乎? 予乃著笑話一書, 評列警醒, 令讀者凡有過愆偏私, 諛味貪癡之種種, 聞予之笑, 悉皆慚愧悔改, 俱得成良善之好人矣, 因以‘笑得好’三字名其書.)<sup>6)</sup>

- 3) 馮夢龍, 《笑府》, 福州, 海峽文藝出版社, 1991 : 古今世界一大笑府, 我與若皆在其中供話柄, 不話不成人, 不笑不成話, 不笑不話不成世界.
- 4) (明)趙南星 等, 《明清笑話四種》, 臺灣, 華正書局, 1987, p.2 : 書傳之所紀, 目前之所見, 不无可笑者, …… 此孤居無悶之一助也. 然亦可以談名理, 可以通世故, 染翰舒文者能知其解, 其爲機鋒之助良非淺鮮.
- 5) 王利器·王貞珉 選編, 《中國笑話大觀》, 北京出版社, 1995, p.154 : 人生世間, 與之莊言危論, 則聽者寥寥, 與之歸浪談諧, 則歡聲滿座.

라고 하여 웃음으로 인간성을 회복, 선량한 사람이 유도한다는 것으로, 笑話가 갖는 풍자성과 도덕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笑話는 민중의식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笑話는 낡은 권위나 경화된 관념을 파괴하고 삶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지 웃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笑話의 기록자는 일차적으로 '破閑'을 위하여 웃음거리리를 모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한 바는 단순한 破閑이나 遊戲에 그치지 않고 風教와 勸懲에 본뜻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笑話의 勸懲主義는 笑話集을 지었거나 序跋文을 쓴 中國文人들의 일관된 사상이기도 하다.

이제 韓國文人들의 소화관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李滉과 함께 趙光祖의 伸冤을 상소하고 吏判을 역임한 문인 宋世珩은 <禦眠橋>의 저자 宋世琳의 아우인데 그는 <禦眠橋>의 序文에서 “江湖에 물러나 휴양하면서 한가함을 매꾸고 害亂을 없애기 위해 村話 가운데서 잠을 쫓을만한 것을 골라 孟浪한 文辭에 寄託하여 약간의 이야기를 지어 <禦眠橋>이라 이름하였다.”<sup>7)</sup> 하고 “그 사이에 史臣의 논평은 공자의 춘추가 쇠퇴해진 세상의 인심을 경계하는 것과 같으니, 先生이 이 책에 둔 뜻은 익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 名教의一端을 세우는데 있다.”<sup>8)</sup>하였다. 또한 同書의 跋文을 쓴 鄭士龍도 “근본은 비록 遊戲에 두고 있지만 勸戒의 뜻이 진실로 그 안에 담겨 있다.”<sup>9)</sup> 하여 그 뜻이 단순한 滑稽에 있지 않음을 밝혔다.

姜希孟이 쓴 <滑稽傳>의 序文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일은 아름다운 것, 더러운 것 할 것 없이 풍속을 경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말은 다듬어진 것, 거친 것 할 것 없이 이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귀하다. 이 때문에 수레바퀴 각은 것을 보면 오묘한 경지를 터득하였는지 알 수 있고, 滄浪의 淸濁을 보고서 自取의 기미를 살필 수 있나니, 어찌 상스러운 말과 길거리의 談論이라고 하여 정밀한 뜻이 깃들여 있는 바를 궁구하지 않을 수 있으랴.

(事無美惡警俗者爲重, 語無精粗詣理者爲貴, 是以觀斷輪則知其自得之妙, 聽滄浪則審其自取之機, 庸可以鄙言巷論, 不究夫精義之所寓耶.)<sup>10)</sup>

6) (明)趙南星等, <明清笑話四種>, 臺灣, 華正書局, 1987, p.146.

7) 李月英等 譯註, <古今笑叢>, 한국문화사, 1998, p.268 : 退養江湖, 思所以補閑而亡害亂, 採摭村話之可以破眠者, 託爲孟浪之辭, 著若千百言, 名之曰禦眠橋.

8) 李月英等 譯註, <古今笑叢>, 한국문화사, 1998, p.268 : 其間史臣之論, 陽華秋凜, 戒喪世人心, 先生之寓意於斯者, 不在於滑稽, 而實欲扶名教一端.

9) 李月英等 譯註, <古今笑叢>, 한국문화사, 1998, p.310 : 雖本於遊戲, 而勸戒之意, 實寓乎其中.

10) 李月英等 譯註, <古今笑叢>, 한국문화사, 1998, p.28.

위의 내용은 笑話의 風敎的 的의를 역설하면서 徐居正의 저작 의도를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續製眼樞》의 跋文을 쓴 洪瑞鳳은 정통적 문학관에 맞서 滑稽笑話의 효용성을 보다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 또한 말이 이치에 맞다면 精粗를 가릴 게 없다 하며, “성군의 이 책은 사람으로 하여금 감발케 하고 징계함이 있으니 어찌 유희하고 해학하는 것에 그칠 뿐이겠는가!”<sup>11)</sup>하고, 혹자가 기록한 바 대부분이 더럽고 방자한 것과 관계 있으니 어찌 덕을 해치고 문장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하자, “그렇지 않다. 禮記에 이르기를 ‘긴장하기만 하고 이완되지 않는 것은 文과 武에서 하지 않는다’하였다.”<sup>12)</sup>라고 하여 笑話의 가치를 적극 인정했다. 《箕葉志譜》의 跋文을 쓴 許格 또한 “비록 목적인 바가 戲玩에 있지만 勸戒에 뜻이 있다.”<sup>13)</sup>라 했다.

中國과 韓國 文人들의 笑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소화의 가치를 오락성과 교화성에 두었다는 점에서 兩國 文人들의 笑話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2. 中·韓 笑話集 概況

### 1) 中國 笑話集

《笑府》<sup>14)</sup>를 중국측 주요 자료로 삼았다. 《笑府》는 明末 通俗文學家 馮夢龍(1574~1644)의 笑話集이다. 소화의 ‘和諧作用’과 ‘敎化作用’을 인식한 馮夢龍의 소화집에는 《笑府》 외에 《古今譚概》가 있다. 《古今譚概》가 대체로 그의 創

11) 李月英 等 譯註, 《古今笑叢》, 한국문화사, 1998, p.378 : 成君此書足令人有感有懲則, 奚止於遊戲諧謔之資而已哉.

12) 李月英 等 譯註, 《古今笑叢》, 한국문화사, 1998, p.379 : 不然. 記云張而不弛, 文武不爲也.

13) 정용수 編, 《고급수총·명업지해》, 국학자료원, 1998, p.262: 雖本於戲玩而亦有以勸戒.

14) 현재 流通되는 《笑府》는 모두 日本 內閣文庫 所藏本 《笑府》를 底本으로 하고 있지만 各出版社마다 수록하고 있는 편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上海古籍出版社에서 影印한 《笑府》는 第6卷의 5쪽 下半部부터 7쪽 上半部까지와 第8卷의 25쪽 下半部가 빠져있어 모두 595則이다. 海峽文藝出版社에서 點校 및 校對인쇄로 출판한 것은 第8卷의 卷名인 “笑府卷八”, 部名인 “刺俗部” 및 小序가 빠져있으며 모두 599則이다. 臺灣政治大學에서 《明清善本小說叢刊初編》을 편집하였는데 여기에서 影印한 《笑府》는 모두 600則이다. 본 논문은 이 가운데 오탈자가 가장 적고 완정본에 가까운 海峽文藝出版社(福州, 1991)에서 출판한 《笑府》를 底本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作笑話를 실고 있는데 비해 《笑府》는 口傳俗文學 研究의 본래 목적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기 대표 소화집으로 《笑讀》·《笑林廣記》·《廣笑府》 등이 있는데, 중국측 주요 텍스트로 《笑府》를 선택한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笑府》는 民間에서 膾炙되던 것을 채록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 이전에도 笑話集이 있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民間 笑話를 채록한 것으로는 초기의 것으로, 이후 採錄 笑話書의 產生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 많은 작품에 附評이 있는데, 이 附評은 여러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특히 내용에 대한 비평을 많이 담고 있어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 부평을 통해 단순한 우스개소리를 통렬한 세대풍자문학으로 승화시키고, 笑話에 散文의 성격을 부여하며, 馮夢龍의 문학관, 세계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분류 기준이 모두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13개의 세부 분야로 비교적 정연하게 성격에 따라 笑話를 분류하고 있고, 각 分部마다 小序를 달고 있어 이를 통해서도 주제 및 편자의 편집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본문 이야기만 해도 600餘 話인데, 다시 附評에 본문과 관련하여 100餘話가 넘는 笑話를 실고 있어 笑話 一般論을 연구하기에 충분한 분량이 된다. 《笑府》는 이처럼 採錄 笑話의 集成이고, 編者의 관점이 분명히 서술되고 있으며, 풍자주제별 分部라는 체계, 분량 등 몇 가지 면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기에 여기서 중국측 자료로 삼았다.

## 2) 韓國 笑話集

비교 대상이 되는 韓國 笑話集으로는 《太平閑話滑稽傳》<sup>15)</sup>·《村談解頤》·《禦眠樞》·《續禦眠樞》·《於野談》·《葉葉志諧》·《破睡錄》·《利野香冊》·《笑囊》·《破睡樞》·《禦睡新話》·《攪睡裸史》 등을 자료로 삼았다. 각 소화집의 편찬 연대순으로 편자와 특징 및 그 가치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sup>16)</sup>

《太平閑話滑稽傳》은 徐居正 撰(1477년)으로 卷一에 82話, 卷二에 63話의 笑話가 수록되어 있다. 徐居正은 조선조 전기 官人文學을 대표하는 문장가인데 《太平閑話滑稽傳》은 한문 소화집의 효시로서 사대부의 풍류와 여유를 나타내주는 이

15) 《太平閑話滑稽傳》을 비롯하여 《村談解頤》·《禦眠樞》는 직접적인 인용대상 자료는 아니지만 前時期 笑話와의 비교를 위하여 대상자료로 삼았기에 여기에 제시한다.

16) 중국측 자료인 《笑府》에 비해 많은 소화집을 자료로 삼았으나 한국 소화집의 경우 하나의 소화집에 실린 이야기 수가 적게는 10편에서 많아도 135편인 점을 감안할 때 《笑府》(전체 699편)와의 균형을 위하여 다소 여러 개의 소화집을 자료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야기가 주를 이루며 그밖에 사대부 주변의 인물들, 예를 들어 기녀·무인·의원·역관·아전·내시·군졸 등의 이야기도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다. 각 이야기의 제목도 없고, 내용상의 분류도 없이 짧은 이야기를 이어서 편집했으며 상당수 이야기 말미에 주제를 함축한 풍자사가 첨가되어 문인 취향의 세련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소설이 나타나기 이전, 說話文學의 양상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서두에 梁誠之와 姜希孟의 서문이 실려 있다.

《村談解頤》는 조선 성종 때의 문장가 姜希孟(1424~1483)이 시골 사람들이 들려준 우스개 소리들을 채록한 것인데 ‘解頤’는 입을 벌리고 웃는다는 뜻이다. 姜希孟은 ‘太史公曰’로 시작되는 교훈적인 논평을 이야기 말미에 붙였는데, 이는 역사 서술자의 史評 양식을 모방한 것이다. 《古今笑叢》에 10話が 실려 있다.

《禦眼楮》은 잠을 막아 주는 방패하는 뜻을 제목으로 한 소화집인데, 연산군 8년(1502) 문과에 급제한 바 있는 宋世琳이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살면서 시골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채록한 것이다. 전체 82화의 笑話가 전해지고 있으며 내용이 다양하여 단순한 笑話, 寓話, 猥褻談, 풍자적인 詩話, 신화적 내용의 童話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남녀의 性戲를 노골적이며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남녀의 好色을 풍자한 내용의 笑話가 단연 우세하다. 저자가 만년에 은거해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확실한 편찬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아우 宋世珩의 序나 鄭士龍의 跋文을 참고하면 대략 1530년 전후일 것으로 추측된다. 1947년 정음사에서 《속어면순》·《촌담해이》와 더불어 활자로 간행했으며, 1958년 민속학자료 간행회에서 간행한 《古今笑叢》에도 들어 있다.

《續禦眼楮》은 《禦眼楮》의 소화적 성향을 더욱 세련된 필치로 계승한 것이다. 편찬자인 成汝學(1577~?)은 평생을 불우하게 지낸 시인인데, 남녀의 교접을 묘사한 생생한 비유와 표현의 묘미가 단연 돋보이며, ‘史臣曰’로 시작하는 서술자의 논평에서도 性과 관련된 남녀의 은밀한 심리를 날카롭게 간파함으로써 감칠맛을 더해주고 있다. 전체 32話의 笑話가 수록되어 있고, 撰者의 서문은 없고 洪瑞鳳의 跋文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禦眼楮》에 미처 채록하지 못한 笑話를 수집해서 한 권의 책자를 이루었기 때문에 書名을《續禦眼楮》이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용도 《禦眼楮》과 같은 유형이며 실제로 두 笑話集을 비교해 보아도 대부분이 과장된 의설담이라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於于野談》은 광해군 때 柳夢寅이 지은 野談集으로 野史·巷談·街說 등이 수록되었는데 민간에 흔히 유포된 음담패설이 아닌 풍자적인 설화와 기지있는 야

담들로서 조선 중기 설화문학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箕葉志譜》는 조선 중기 문신 洪萬宗(1643~1725)이 편찬한 笑話集으로 74話가 《古今笑叢》에 들어 있다. 洪萬宗이 西湖에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의 閑談을 듣고 기록하였던 글로서 그 내용은 풍자적이고 교훈적이며 경계하는 글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탐욕스럽거나 무능한 관리에 대한 백성들의 조소, 지식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 신분에 관계없는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각 이야기마다 끝에 '야사씨왈(野史氏曰)'로 시작되는 논평을 덧붙임으로써 名과 實이라는 당대의 세태를 초연한 입장에서 풍자하고 있다.

'잠을 달아나게 하는 이야기'라는 뜻의 《破睡錄》은 당대의 변화하는 인심과 세태를 대단히 교묘한 서술 방식을 통해 첨예하게 드러나도록 이야기하고 있으며, 《禮記》와 《周易》 등의 經典을 인용하며 곁들인 논평 또한 의미있는 여운을 남겨준다. 서술자가 '副墨子'라고만 되어 있을 뿐 편찬자가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 않으며, 편찬 연대미상이나 1742년이라는 주장과 1802년이라는 주장이 있다. 내용은 주로 野談·俗語·笑話·淫談 및 才談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이야기마다 뒤에 '史臣斷曰'로 시작되는 편자의 評語가 있어 이해에 도움을 준다. 《罷睡錄》 등 여러 異本이 있으나 내용은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利野耆冊》은 조선 전기의 名士·寄人들에 관한 이야기를 說話式으로 서술한 漢文列傳으로 작자 미상이나 창작시기는 대략 1704~1710년으로 추정된다. 중간에 골격적 내용의 민간설화 등이 삽입되어 있다.

《笑囊》은 寂濱子 撰으로 되어 있어 현재까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편찬 연대는 1717년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 《笑囊》은 아직까지 학계에서 소개된 적은 없으나 문학사에서 의미있게 다루어져야 할 작품으로 보인다.

찬자와 편찬연대 미상인 《破睡椎》 현재 국도본·동양문고본·육당본의 세 가지 異本이 있다. 1811년에 찬집된 《陳談論》 역시 《破睡椎》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破睡椎》는 조선조 패설문학사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는 작품집인데 다른 것과는 달리 형식적인 면에서 비교적 완전한 체재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미약하나마 비평의 양식도 보인다.

《繫睡新話》는 정조 때 張漢宗이 편찬한 野談集으로 민간에 유포된 俗說·才談·淫談·笑話 등을 모아 엮었다. 조선 후기 패설집으로는 드물게 찬자의 實名이 밝혀져 있고, 총 135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張漢宗 自序가 있다.

《攪睡襟史》는 찬자와 편찬연대가 미상이나 대강 조선 후기 작품집으로 추정하



고 있다. 《攪睡雜史》에는 그 당시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를 웃음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으며 지배 계층에 대한 풍자는 더욱 많다.

### Ⅲ. 受容과 變異樣相

앞절에서 제시한 자료를 대상으로 인물설정, 기본내용, 골계소<sup>17)</sup> 등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해 보았다. 韓國 笑話가 中國의 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양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기본 내용과 등장인물이 거의 일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轉寫 과정에서 보이는 약간의 차이만 보일 뿐이므로 거의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기본 내용은 유사하나 등장인물이 달라진 경우이다. 세 번째는 일부 내용이 탈락되거나 새로운 일단의 이야기가 첨가된 경우이다. 끝으로 네 번째 유형은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다른 이야기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것으로, 골계소는 유사하나 표현이 상당부분 변이된 경우이다. 이 경우 필자는 골계소가 같음에 주의하여 수용과정에서의 변이로 보았다.

#### 1. 기본내용·등장인물 동일

기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서로 일치, 인물 설정도 거의 같으며, 약간의 표현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한 경우이다.

어떤 술자리에 한 사람이 하도 맹렬히 먹고 마셔대자, 동석한 사람이 입이 떡 벌어져서는 나이를 물었다. 개띠라고 대답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개띠였기 망정이지 호랑이띠였다면 나까지도 먹어치웠겠군.”

(一酒客訝同席者飲啖太猛，問其年，對以屬犬，曰：“早是屬犬，若屬虎，連我也都吃了。”《笑府 12-1218》)

두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였다. 그 중 한 사람이 매우 급하게 먹기에 같이 앉아서 먹는 사람은 기본이 좋지 않았다. 이에 그에게 물었다. “당신의 나이는 얼마나 되오?” 그 사람은 곧 바로 질문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하였다. “나는 戌生이오. 술은 곧 개에 속하기 때문에 식욕이 이리하여 먹는 것도 급하도오.” 그러자

17) 모든 笑話에는 일반적으로 굳이 그 내용을 세세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해당 笑話에 포함된 포인트를 직감할 수 있게 해주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 笑話의 내용을 대표하는 독특하고 인상적인 내용이 있기 마련인데 이를 ‘골계소’라고 하였다. (김영준, 《韓中笑話 比較研究》참고)

18) 인용문 중의 숫자는 ‘권수·차례’를 제시한 것임을 밝혀둔다.

질문한 사람은 웃으며 답하였다. “만약 인생이었다면 인은 호랑이에 속하기 때문에 분명 나가지도 먹어치우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구려.”

(兩人同卓公食。一人食之太甚急，對食者有不平之心，而問之曰，“君之年歲，幾何？”其人即解其意，卒答曰，“我戌生，戌乃犬屬，故食慾如此，食之急矣。”問者笑曰，“若寅生，寅屬於虎，必有并我沒喫之慮也。”《利野耆冊》)19)

위의 인용 예는 부분적으로 표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인물 설정과 기본 내용의 측면에서 중국 笑話와 거의 유사하여 중국 笑話의 강력한 영향 아래 산생된 笑話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아래에 이와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소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출전		등장인물	기본 내용- 中(韓)
中	韓		
① 笑府 12-40	攪睡雜史26	어떤 사람, 술집주인, 다른 손님	술맛이 안좋다고 말한 사람을 술집 주인이 결박하였다(매달았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술맛을 보더니 자신도 결박하라(매달라)고 하였다.
② 笑府 10-6	禦睡新話117	왼쪽 오른쪽 시각장애, 고도근시	나란히 앉은 왼눈 먼 자와 오른눈 먼 자를 보고 눈 나쁜 근시자가 그들을 미간이 넓은 한 사람으로 착각한다.
③ 笑府 2-29	笑囊	스승과 제자	스승이 낮에 졸다가 깨서는 주공을 만나고 오는 길이라고 둘러댄다. 뒷날 학생이 즐기기에 스승이 꾸짖었더니 자신도 주공을 만나고 온다고 하기에 스승이 주공이 무엇이라 하더냐고 묻자 제자는 지난번에 스승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대답함.

①과 ②의 예, 특히 ②의 예는 거의 글자 한 두자의 차이뿐 거의 같다. ③의 예는 이후 笑話集에서도 ‘꿈으로 꿈을 제압하는’ 유형의 많은 유사 笑話를 찾을 수 있다.

위의 유형에 속하는 笑話에 보이는 표현의 차이는 본 이야기의 골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이이며 일반적으로 어떤 笑話가 하나의 笑話集에서 다른 笑話集으로 전래될 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20)으로 그것 때문에 작품 전체에

19) 《太平閑話滑稽傳》을 비롯하여 《於野談》·《破睡錄》·《利野耆冊》·《笑囊》 등은 소화의 제목이나 차례가 붙어 있지 않다. 이 경우 작품집의 이름만 제시한다.

20) 이러한 현상은 笑話의 경우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왜냐하면 笑話의 경우 대개는 그 내용이

특별한 의미상의 차이가 초래되지는 않는다.

## 2. 기본내용 동일, 등장인물 상이

이야기의 기본 골격은 동일하지만 인물 설정에서 다소의 변이가 보이는 경우인데, 인물의 변이가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다.

어떤 형제가 밥을 갈다가 형이 먼저 돌아가서 밥을 지었다. 밥이 다 되자 큰소리로 동생을 돌아오라고 불렀다. 동생이 멀리서 대답했다. “호미를 발득에 숨겨놓고 금방 갈게요.” 밥 먹을 때 형이 동생에게 일러주었다. “물건을 숨긴다는 것은 비밀스럽게 해야지. 너처럼 큰소리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테니 도둑 맞지 않겠어?” 동생이 네, 네 하고 대답했다. 밥을 다 먹고 밭에 가보니 호미가 이미 없어진 뒤였다. 그래서 동생이 급히 돌아와 형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호미를 이미 도둑 맞았어요.”

(有兄弟耦耕者，其兄先歸作飯，飯熟，聲喚弟歸，弟遙答云：“待我藏鋤田畔，即來也。”飯時，兄謂之曰：“凡藏物須密，如汝高聲，人皆聽見，豈不被偷？”弟唯唯，及飯畢下田，鋤已失矣，因急歸，低聲附兄耳曰：“鋤已被偷去了。”《笑府 6-42》)

어리석은 사람이 호미를 밭에 숨겨두고 아내가 어디에 두었냐고 물으니 큰 소리로 대답했다. “밭의 몇 번째 골에 묻었어.” 아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가 누군가가 듣고 가져가면 어쩌려고요?” 하였다. 그 사람은 돌아와 아내의 귀에 대고 말했다. “호미가 이미 없어졌어.”

(某人藏鋤於田，妻問在何所，高聲曰：“在田第幾畝。”妻曰：“如是高聲，或有人聞之，先取去何？”其人歸，附耳謂妻曰：“鋤已亡矣。”《於于野談》)

위의 예는 등장인물이 兄弟에서 夫婦로 변이되어 이야기 전개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전체 이야기의 골격에는 별 차이가 있다.

兩國 笑話의 인물설정 상의 변이를 살펴보면 주요인물들을 중심으로 중국 역사상의 인물이나 중국의 특정 지명과 결부되어 구체화되어 있는 인물을 보다 일반적인 인물로 추상화하고 있는 경우, 애초에는 추상화되어 있는 인물을 한국 측의 인물로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는 경우, 중국식의 관직명을 가진 인물을 한국식의 관직명을 가진 인물로 변형시키고 있는 경우, 비슷한 유형의 다른 인물을 제시하여 이야기의 분위기를 바꾸거나 듣는 이의 감정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경우, 막연한 다

짧고 간명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용이하게 기억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따라서 한문 구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본문을 보고 전사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로 자신의 기억력에 의존하여 문장화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른 인물을 설정한 것으로 변형 자체가 별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출전		등장인물		기본 내용
中	韓	中	韓	中(韓)
① 笑府 8-1	攪睡樵史 60	인색한 사람과 그의 아들, 어떤 사람	인색한 사람과 그의 아들, 월천군	물에 빠진 자가 어떤 사람(월천군)과 구조비를 다투는 아들에게 비싼 값으로는 구하지 말라고 함(너무 비싸다면서 주지 말라고 함.)
② 笑府 6-14	破睡樵	어떤 愚人	어떤 어린 아이	“문왕이 유리에 감금되다”라는 전적의 내용을 지금의 일로 받아들여 눈물을 흘림
③ 笑府 4-33	破睡樵	풍수설을 광신하는 어떤 사람과 그의 가족	사위와 장인	풍수설을 광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사위와 장인이) 어쩌다 담장 아래에 앉아있다가(길을 가다가) 담장이 무너져서(언덕이 무너져) 깔렸다. 이에 급히 사람살리라고 외치자 가족들이(사위가) 음양가에게 오늘 땅을 옮겨도 좋을지 물어보고 올테니 잠시 참으라고 대답함.(역서를 찾아 오늘 흙을 옮겨도 되는지 보겠다고 함)

②의 예 유리에 갇힌 文王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인 《破睡樵》의 〈爲泣文王〉에서는 눈물을 흘린 주체가 어리석은 사람에서 어린아이로 바뀐다. 이야기에서 어린아이가 중심이 되면 서사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비판적인 시각을 돋보이게 할 수 있기에 《破睡樵》의 撰者는 눈물을 흘린 주체를 어린아이로 바꿔 놓은 것이다.<sup>21)</sup> ③의 예는 등장인물이 사위와 장인으로 변이되었는데, 이는 笑話에서 갈등관계에 있는 여러 쌍 가운데 장인과 사위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일반인의 보편적인 정서가 보다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내용의 탈락과 첨가

21) 金埃亨, 〈鑑離葫蘆〉와 우리나라 패설문학의 관련양상) 참고.

中國 笑話의 기본 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일부 내용을 첨가, 부연설명을 덧붙인 경우이다. 그리고 이야기 뒷부분에 評語나 유사한 다른 笑話를 병기한 경우도 있다.

한 부자가 평소에 옛것을 좋아했다. 어떤 사람이 詐欺로 '순임금이 만든 칠기 대접', '주공이 백금을 매질하던 지팡이', '공자가 행단에서 깔고 앉았던 좌석' 등을 가져 와서 팔려고 하자 각기 천금씩을 주고 그것을 손에 넣었다. 그 바람에 재물이 바닥나서 왼손에는 순임금의 대접을 들고, 오른손에는 주공의 지팡이를 잡았으며, 몸에는 공자의 자리를 걸치고 저자에서 구걸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다. "태공의 구부런 한 퉁 주십시오."

(一富人素性好古，或僞以舜所造漆碗，周公鍵伯禽之杖，孔子杏壇所坐之席求售，各以千金得之。囊資既空，乃左執虞舜之碗，右持周公之杖，身披孔子之席，行乞於市曰：“求賜太公九府錢一文。”《笑府》 6-52)

옛날에 옛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살았다. 집안도 꽤 넉넉하여 옛날 물건이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은 집안 재산을 다 기울여 사고야 말았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깨어진 표주박을 하나 가지고 와서 말했다. "이것이 허유가 귀 썼던 표주박이오." 그 사람은 백 금을 주고 샀다. 어떤 사람이 다 헤진 앉을 방석을 하나 가지고 와서 말했다. "이것이 공자께서 행단에서 강의하실 때 쓰던 앉을 방석이오." 역시 백 금을 주고 샀다. 어떤 사람이 대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와서 말했다. "이것이 바로 비장방이 쓰던 칠껍질로 만든 지팡이오." 역시 백 금을 주고 샀다. 어느덧 집안 재산은 다 없어졌으나 자신은 얻은 바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루는 일어나더니 왼손에 표주박을 쥐고 오른손에 막대를 잡고서 옆구리에 방석을 낀 채 꺾록거리면서 나갔다. 바로 거지나 다름 없었다. 사람들이 다 입을 막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옛것을 좋아하다 집안을 망친 것을 비웃은 것이다.

야사씨가 말했다. 이 사람이 바로 옛것을 좋아한다는 헛된 명성만 취하다가 집안까지 망치는 해를 자초한 것이다. 아! 이것이 어찌 범인들만 경계해야 할 것이겠느냐? 임금도 마찬가지다. 단지 어진이를 좋아하는 마음만 갖고 명성으로 사람을 취하기 때문에 나라를 망치게 되는 화근을 자초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왕망이 주공에 비의했음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왕안석이 당우 시대를 본받았음을 마음 속에 두기도 하지만, 옛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견줄 만한 것은 없을 것이다.

(昔有好古之人，家破饑，聞人有古物者，必傾家貲而買之，有人持一破瓢曰，此乃許由洗耳之遺瓢也。其人以百金買之。有人持一破席曰，此乃孔子杏壇之講席也。其人又以百金買之。有人持一竹杖曰，此乃費長房葛皮之杖也。又以百金買之。家貲已盡而心有自得之狀。一日，充然而起，左持瓢右持杖，挾席於腋下，蹣跚而行，奄然一乞人也。人皆掩口，笑其好古而破產也。野史氏曰，斯人務取好古之虛名，自致破產之實害。噫！此其獨凡人戒乎。人主亦然，徒有好賢之心，以名取人，至招喪邦之禍者，多矣。或信王莽之能擬周公，或意安石之可法唐虞，得無與好古者，比歟。《萸葉志譜 28》)

위의 인용 笑話를 보면 옛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금을 주고 사들인 물건 세 개 가운데 두 개가 허유가 귀 셋던 표주박, 비장방이 쓰던 칩검질로 만든 지팡이로 바뀌어 있다. 그리고 주인공의 심리상태와 주변인물들의 반응 등이 첨가되었다. 그리고 끝에는 경제적인 내용을 담은 평어가 붙어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수용 과정에서 덧붙는 내용이 笑話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같은 유형의 笑話를 예로 들어 보자.

출전		등장인물		기본 내용	
中	韓	中	韓	中	韓
① 笑府 9-10	攪睡襟史	신부와 시아머니	신부와 시아머니	신부가 막 시집에 와서 사당에 절하다가(폐백을 드리다가) 아이를 낳자, 시어머니가 너무도 부끄러워 급히 그 아이를 숨겨버렸다. 그러자 신부가 '어머니가 기뻐하실 줄 알았다면 집에 두고 온 큰 놈, 둘째 놈(작년에 낳은 아이)도 다 데리고 올 걸 그랬네' 라고 말함.	끝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고 시어머니는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했다'는 내용 첨가
② 笑府 11-7	箕葉志譜 7	남편과아내 시아머니 아전 현령	동일	남편이 장사 나갔다가 거울을 사왔는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아내와 어머니, 현령이 각기 첩, 할망구, 중앙관리로 오해함.	笑府와 같은 맥락. 앞에 잘못하여 빗을 사오는 부분과 곳곳에 부연 설명이 있고, 평어도 첨가
③ 笑府 6-30	箕葉志譜 18	아졸, 죄지은 중	동일	죄 지은 중이 암송하는 아졸에게 술을 먹여 풀아떨어지게 한 후 그의 머리를 깎고 그를 묶어 놓고 도망가니 아졸이 술에서 깨어나 중은 여기 있는데 자기는 어디 갔느냐고 함.	술을 秋露酒라고 명시. 끝에 '마침내 아졸이 중대신 유배지에 가게 되었다는 말이 첨가.

위의 인용 예를 보면 수용과정에서 내용이 첨가되거나 평어 등이 덧붙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수용을 거쳐 산생된 이야기는 양적인 면에서 보다 길어진 양상을 보이는데 여기서 笑話의 작법기교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sup>22)</sup> 笑話는

22) 張美脚, 《馮夢龍의 '笑府' 연구》제 5장 참고.

‘웃음유발’이라는 일차 목적의 달성을 위해 앞 부분의 줄거리가 주로 복선 작용을 일으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체 이야기의 우스갯거리는 주로 마지막 한 구절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것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손님을 접대하고 있었는데 그만 방귀를 뀌게 되었다. 부끄러운 김에 그것을 숨기려고 손톱으로 의자를 연이어 긁어 소리를 냈다. 그러자 손님이 말했다. “그런대로 첫 번째 소리와 닮았군.”

(一人方陪客，偶撒一屁，愧甚，欲掩之，乃連以指磨椅面作響。客曰：“還是第一聲像。”  
《笑府》 10-47)

위의 예를 보면 마지막 한 마디가 나오기까지 나머지는 모두 상황설명인데, 다소 비정상적이거나 곤란한 상황을 설정하여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 단순한 서술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笑話 가운데에도 실제 사건, 혹은 실제 사건처럼 보이도록 만든 사건을 역사적 기록 등에 근거해서 채록한 笑話나 笑話에 가까운 寓言들은 가끔 사건의 종결 다음에 그 뒷이야기를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그래서 세상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거나 “얼굴이 붉어져서 도망나왔다”, “장내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등과 같은 말을 添言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添言은 笑話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笑話를 재미없게 만들뿐이다. 中國笑話의 수용과정에서 보이는 한국 笑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위의 인용 예와 같이 바로 불필요한 부연 설명이나 상황설명이 많다는 점이다. 혹자는 이를 서사적인 즐거위의 확장, 긴밀해진 구성 등을 들어 긍정적인 면에서 보기도 하였으나<sup>23)</sup> 笑話라는 문학형태의 본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 4. 골계소 유사, 표현의 이질화

비슷한 맥락이긴 하나 기존 이야기와는 표현이나 구성이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표현기법이 같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었다. 父子가 길에서 매일 술 한 톨어치를 샀는데 금방 다 없어질까 봐 젓가락으로 찍어서 그것을 맛보려고 약속했다. 그 아들이 연거푸 두 번을 찍자 아버지가 야단을 쳤다. “이렇게 술을 급하게 마시면 어떻게 하느냐?”

(有性吝者，父子在途，每日沽酒一文，慮其易竭，乃約用箸頭蘸嘗之。其子連蘸二次，

23) 金坡亨, <鑑離葫蘆와 우리나라 패설문학의 관련양상>.

父叱曰：“汝吃如此急酒耶？”《笑府 8-9》)

오성이 젊었을 때에 절에 가서 독서를 한 적이 있었다. 하루는 먹을 반찬이 없어서 스님에게 부탁을 했다. “밥상 곁에 앉아 한 손가락에 한 번씩 계장이나 외쳐 주시구려.” 스님이 그의 말대로 한 손가락에 한 번씩 계장을 외쳐댔다. 거의 대여섯 손가락 쯤 되었을 때 잘못하여 연거푸 불러버렸다. 오성이 재빠르게 말리며 말했다. “아이, 짜, 너무 짜, 낭비하지 마시오, 낭비하지 마.”

(鰲城少時，上寺讀書，一日食無饌，令僧坐床傍，每一匙一呼蟹鹽，僧依其言一匙一呼，幾至五六匙，誤疊呼蟹鹽，鰲城函止之曰，太鹹太鹹，勿浪費勿浪費，《蕘葉志譜 58》)

위의 인용 예를 보면 익히 알고 있는 '구두쇠가 굴비를 천정에 매달아 놓고 식사때마다 한번 씩 쳐다보고 맨밥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연상된다. 물론 이야기 전개 면에서 위의 두 笑話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인색한 사람'이라는 골계소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수용의 한 예로 보았다.

다음의 인용 笑話 역시 동일한 골계소 하에 이야기 전개에 있어 다소간에, 혹은 상당히 큰 변이가 보이는 예들이다. (【표】 1 참고)

①의 예는 《笑府》의 것을 대폭 확장하여 개작하였는데, 이는 당시 한국인의 정서에 맞춰 다분히 의도적인 변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笑府》 笑話의 골계소는 '男色'인데 男色을 골계소로 한 것은 중국의 笑話集에서 비교적 자주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학에서 男色이 소재로 쓰인 작품은 극히 드물어서 소설은 물론이고 야담에서도 이러한 소재가 쓰인 경우는 찾기 힘들다. 이에 대하여 김준형은 실제로 우리 나라 패설집에 수록된 이야기 1,500여편 중에 男色이 이야기의 중심에 놓인 작품은 단 한 편도 없다고 한다.<sup>24)</sup> 이는 우리 민족이 男色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며 張漢宗은 男色이 중요 골계소인 《笑府》의 내용을 한국의 정서에 맞게 의도적으로 '報恩'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中國笑話를 수용하면서 실제로 목적성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sup>25)</sup> ②의 예는 '인색함'이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인색한 고을 원에 대한 풍자가 포함되었다.

③의 예는 笑話의 작법기교 중의 하나인 “文字遊戲”를 골계소로 하여 구성된 것이다. 문자 유희는 주로 글자의 형을 풀어헤치거나 재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글자의 형을 풀어헤치는 것은 '破字'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글자의 형을 풀었다가 다른 형식으로 재조립하거나 일부 모양을 바꾸는 것, 다른 글자를 끼워 넣는 것, 나아가 모양이 비슷한 글자 두 개를 같은 글자



【표1】

출전		등장인물		기본 내용	
中	韓	中	韓	中	韓
① 笑府 8-71	禦睡 新話	어떤 사람, 양귀비, 장비	양귀비, 항우, 여마동	어떤 사람이 들뜬에 떠도는 해골을 물어주었는데 밤에 해골 주인인 '비'라며 나타난 이가 있어 다시 누가 물어더니 '양귀비'라며 고마움의 댓가로 몸을 허락한다. 이 말을 들은 이웃사람도 해골을 찾아 물어주었는데 밤에 '비'라며 나타난 '장비'가 엉덩이라도 대주겠다고 함.	楊貴妃의 등장 뒤에 이웃의 방탕한 친구는 가산을 들여 虞美人의 해골을 찾아나서지만 項羽에게 봉변만 당한다. 그래도 그 친구가 해골을 찾아 묻기에 항우가 따지러 오지만 실제 그 해골의 주인은 우미인이 아니라 呂馬童이어서 항우는 가고 여마동은 그 친구에게 황금을 주고 떠남.
② 笑府 12-1 8	攪睡 雜史	손님과 주인	원님과 이방	한 사람이 손님을 청했는데 식탁에는 두부만 있고 두부는 자기 생명이라고 했다. 뒤에 그 손님 집에 갔는데 식탁에 어육과 두부가 있자 어육만 마구 먹기에 두부는 생명이라 하지 않았는가 물으니 어육을 보니 생명도 필요없다고 답함.	인색한 고을 원이 자신은 생선은 먹지 않으니 채소만 달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이방이 공짜로 얻은 것이라며 생선을 올리자 마구 먹음.
③ 笑府 1-6	破睡 樵	글 묻는 어떤 사 람과 대 답하는 사람	어떤 사람과 스승	어떤 사람이 '薑'자를 어떻게 쓰는지 묻자 '초두자(升 초) 아래에 일자(-), 그 아래에 밭전자(田), 또 한 일자(-), 또 밭전자(田), 또 일자(-)라 했다. 그 사람은 '草薑, 田薑, 田薑'이라 쓰고는 들며다 보더니 '어찌 나를 속이는가. 이런 글자가 어디 있어. 이건 분명히 보배답이구만.'이라며 욕을 함.	어떤 사람이 '薑'자 쓰는 법을 묻자 스승이 '비우자(雨) 아래에 입구자(口) 세 개를 쓰고 다시 아래에 무당무(巫)를 쓰면 된다'고 답한다. 그 사람은 雨자와 巫자 사이에 口자 셋을 층이 써 놓고 스승에게 이 글자는 '춧대 령'자가 아니냐고 물음.

로 취급하는 것 등은 '化形'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26)</sup> 또 誤字(錯別字)를

24) 金坡亭, <鐘離葫蘆와 우리나라 폐설문학의 관련양상> 참고.

25) 金坡亭, <조선조 폐설문학 연구>p206.

26) "化形이란 字形을 나누고 합치고 덮고 보태는 文字遊戲를 말한다." (黃蘆董, <修辭學>, 臺

이용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것, 즉 字形上 잘못된 것, 흡이 가까워 잘못 된 것 등도 포함되는데 서언 첫 머리에 예로 든 笑話도 여기에 해당한다. 서언의 예나 ③의 예는 유사한 작법기교를 수용하되 그 내용은 많은 변이를 거친 경우이다.

## V. 結語

本稿는 明代 馮夢龍의 대표 笑話集 《笑府》와 《繫眠橋》·《續繫眠橋》·《於野談》·《箕葉志諧》·《利野者冊》·《笑囊》·《破睡椎》·《繫睡新話》·《攪睡揆史》 등 朝鮮朝 韓國 文人笑話를 대상으로 상호 수용과정에서의 특징을 유추해보았다. 비교·분석결과 많은 양의 韓國 笑話가 中國의 것을 수용하여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기에 中國에서 韓國으로의 일방적 수용에 초점을 맞추어 그 수용과정에서의 유사성과 變異樣相을 몇 가지로 귀납해 보았다. 그리고 本論의 論議에 앞서 中·韓 兩國 文人들의 笑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笑話의 가치를 娛樂性과 教化性에 두었다는 점에서 兩國 文人들의 笑話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笑話는 웃음을 자아내는 것 외에 嘲諷의 목적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兩國 文人들의 소화에 대한 공통된 관점은 바로 이러한 笑話의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긍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笑話를 통해 心身의 긴장을 풀고 고민을 잊게 할 수 있다는 笑話의 娛樂的인 技能을 인정한 것과 笑話로서 인간의 心性을 善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教化的 技能을 강조한 것이며, 이는 또한 기존의 文人들이 경시했던 笑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笑話가 文學의 영역에서 미약하나마 그 立地를 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受容과 變異樣相은 네 가지 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각개 笑話의 기본내용과 등장인물이 동일한 경우, 다음은 기본내용은 동일하나 등장인물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전체 내용에는 별 영향이 없으나 聽者가 받는 느낌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가져올 수는 있다. 세 번째는 내용의 일부가 탈락하거나 첨가하는 경우이다. 마지막 유형은 골계소는 유사하나 표현이 상당 부분 이질화된 것인데, 이 경우 분위기만 닮았을 뿐 다른 이야기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에 이 유형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中·韓 笑話의 研究에 있어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며 本稿를 맺고자 한다. 먼저 中韓 쌍방 수용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고찰 대상이 된 笑話集 외에 시기를 보다 확대하여 17,8세기 前後의 笑話集을 고찰대상으로 한다면 필시 中國에서 韓國의 笑話를 수용하여 만들어진 이야기도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中國에서 韓國으로의 일방 수용이 아니라 상호 수용관계에 대한 이론 성립과 아울러 상호 수용과정에서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유출해 낼 수 있으며, 이는 中韓 兩國 諧謔文學의 면모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첫 번째의 과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비교문학은 단순히 개별 작품의 전파와 수용을 밝히는 작업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 전파와 수용 과정에서의 일정한 흐름이나 변이가 지니는 구체적 의미를 밝힘으로서 중한 양국 문학의 독자성·정체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 【참고서목】

- 馮夢龍, 《笑府》, 福州, 海峽文藝出版社, 1991.  
 周作人, 《苦茶庵笑話選》, 臺灣, 北新書局, 1982.  
 王利器·王貞珉 選編, 《中國笑話大觀》, 北京出版社, 1995.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 《古今笑叢·笑叢志譜》, 국학자료원, 1998.  
 이월영 등 역주, 《古今笑叢》, 한국문화사, 1998.  
 송세림편저·윤석산편역 《禦眼楮》 서울, 문학세계사, 1999.  
 陳清俊, 《中國古代笑話研究》, 臺灣, 師範大國文所 碩士論文, 1985.  
 張美卿, 《馮夢龍의 '笑府' 연구》, 성균관대학교 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金坡亨, 《조선조 패설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金坡亨, 〈鐘離葫蘆와 우리나라 패설문학의 관련양상〉, 《중국소설논총》제18집, 한국중  
 국소설학회, 2003/9.  
 최용철, 〈조선간본 중국 笑話 鐘離葫蘆의 발굴〉, 《중국소설논총》제16집, 한국중국소설  
 학회, 2002.  
 李濟雨, 〈中國笑話의 研究課題와 重要書目〉,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號, 1998.  
 김영준, 〈韓中笑話 比較研究〉, 《紀全女子專門大學 論文輯》 제16집, 1996.  
 張德順, 〈韓國의 諧謔〉, 《東洋學》 4輯, 단국대학교부설 동양학연구소, 1974.  
 金鐵萬, 〈東西의 諧謔〉, 《韓國文學의 諧謔》, 서울, 1970.  
 李石來, 〈文獻所載 漢文笑話 研究〉, 《성심어문논집》 제7집, 1983.  
 洪順錫, 〈慵齋叢話研究〉, 《국어국문학》98, 국어국문학회, 1987.  
 李愼成, 〈古今笑叢에 대한 一考察〉, 《부산교육대학논문집》 제19집제1호, 1983.

## 【中文提要】

本稿以中韓兩國笑話之比較為主題，主要考究十七八世紀中韓笑話的受容狀態。其中韓國方面資料如《禦眠楮》·《續禦眠楮》·《於于野談》·《箕葉志譜》·《利野耆冊》·《笑囊》·《破睡椎》·《禦睡新話》·《攪睡襍史》等之文獻笑話集，中國方面資料如《笑府》為研究對象。《笑府》在中國眾多笑話集中頗具特色。《笑府》為大量蒐集民間口頭笑話之專書，若「正文」與「附評」共計，多達七百餘則，亦是空前之舉。又有各種功能之附評，馮夢龍之附評有點明愚意，補充說明，考證註釋功用。

深討本論之前，為了解對中韓兩國笑話的認識，考察寫笑話集之序跋文的文人的思考。要之，在兩國文人之對笑話觀點大體相同，積極肯定其娛樂性以及教化性。

中韓兩國笑話之比較·分析結果，可以發現韓國笑話之很多部分受中國的形成，其受容狀態可歸納四個方面。其一，內容類似，主要人物相同的類型。此類笑話有一些表現上的出入，幾乎同一類型的笑話。其二，內容類似，主要人物相異的類型。此類基本骨格相同，但在人物設定上有些變異。其三，內容中之一些部分漏掉和添加的類型。其四，滑稽素很類似，但改變其主要表現的類型。

## 【主題語】

《笑府》，韓國文獻笑話，笑話觀，受容斗 變異